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 光日春秋



김민규  
충남대 동물자원과학부 교수

## 디자인 펫과 동물복지

단시일 내에 사라지게 되고 또 다른 품종이 인기 견종으로 부상하게 되는 경우가 반복된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과 반려동물 간 교류의 관점에서 주변 환경에 적응하는 결과의 형태로 동물 애호에 대한 보호자들의 심리적 특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모순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이다. 이에 반려동물 대중화가 심화될수록 동물 보호 및 애호 사상에 서 편중된 사실에 대한 사회적 권고가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최근 시베리안 허스키와 포메라니언의 교잡종인 일명 ‘폼스키’가 유행한 적이 있다. 허스키의 외모와 포메라니언의 작은 체구를 특징으로 하고 있어 ‘양중맛은 허스키’라는 표현으로 인기를 끌었다. 얼마 전 일본의 방송사에서 필자에게 인터뷰를 요청해 왔다. 요즘 일본에서 유행하는 푸들과 라브라도 리트리버의 교잡종인 ‘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것이었다.

이 품종은 10여 년 전 호주에서 맹인 안내견의 털 빠짐을 줄이겠다는 생각으로 번식을 시행했으나, 실패한 경험이 있는 품종이었다. 하지만 미국 아이돌그룹 원 디렉션(One Direction)과 전 부통령 존 바이든이 기르던 개라는 이유로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두들은 대체로 성격이

온화하고 털이 잘 빠진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의 욕구에 의해 태어나는 품종을 요즘 일명 ‘디자인 펫’(Design pet)이라 부른다.

개의 품종의 형성 과정을 보면 기후와 주변인의 기질에 따라 변화해 세계적으로 400여 종이 존재하지만 한 품종이 완성될 때까지는 약 100~200년 정도가 소요돼 왔다. 이러한 과정 중에 사람들에게 선택된 개체만이 번식에 사용돼 왔고, 그렇지 못한 개체는 도태돼 지금의 품종을 완성했다.

하지만 디자인 펫은 이와 조금 다른 성격의 품종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의 욕구에 의해 나타난 개의 개를 추구하는 이기심에 의해 작위되고 있는 하이브리드(교잡) 품종이다. 두들은 푸들 75%와 리트리버 25%의 유전자가 발현될 때 가장 인기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하이브리드 품종은 인기가 없어 도태되고 만다. 그 후세대는 근친으로 인한 질병과 성격에 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품종들이 인기를 끌면 강아지 공장 업자들은 이익에만 혈안이 돼 인기 품종을 생산하려 한다. 미국의 경우 도 이러한 현상은 존재해 법규가 미비한 알칸사스주에서는 이런 업자들이 우글거

리기도 한다. 이렇듯 반려동물의 선택이 자칫 동물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3월 22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돼, 동물의 학대를 금지하는 동물 복지(Animal welfare)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동물 복지’ 또는 ‘동물 보호’는 인간이 동물에게 미치는 신체적 및 심리적 학대나 고통을 최소화해 동물의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다. 공정형 축산, 블리드 스포츠, 동물권 보호, 생명윤리학, 인간과 동물 유대, 화장품 동물 실험 등이 주요 쟁점 내용들이다.

몇 년 전 방송을 통해 공개돼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던 일명 ‘강아지 공장’ 사건 이후 기존의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됐고, 동물보호법을 통해 동물의 위생과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법적 차원의 보장이 강화됐다. 하지만 동물보호법에 의한 규제나 처벌 규정에 의하기보다는 헌법 제35조에 명시한 것처럼, 포괄적인 환경 보호로 환경에 동물을 포함시킬 수 있는 국민적 합의와 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반려동물은 감각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반려견 보호자들의 특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시대다.

### 종교칼럼



중현  
화순 용암사 주지스님

늦은 오후 무렵이었다. 절 아래 주차장에 초파일 연등을 다는 일이 거의 마무리될 즈음에 신도님들이 몇 분 찾아왔다. 한 참 등을 달고 있는 내게 인사를 하길래, “등 달러 왔어요?”라고 화답했다. 그랬더니 그녀들의 얼굴에 난감해 하는 표정이 언뜻 스치고 지나가더니, 살짝 지어낸 티가 나는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에! 그래야죠... 우리도 할까요? 얼마나 낫았어요?”

“다했어요. 먼저 올라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저희는 먼저 올라가 있을게요.”

절집에서 “등을 단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말 그대로 등을 다는 것. 내가 한 일을 말한다. 둘째는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초파일 연등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 그러니까 나의 화답에는 이 두 가지

## 빈자일등(貧者一燈)

의미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시기적으로 연등을 접수할 시기라 광주에서 일부러 온 것일 터인데, ‘오늘 등 다는 일을 하기로 한 걸 알고 있었나? 그래서 도와주려고 오늘 왔나?’ 싶은 생각이 언뜻 들었던 것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들은 오늘 등 다는 일을 한다는 걸 몰랐다. 연등을 접수할 겸, 오랜만에 용암사 나들이 한 것이다. 그런데 주지스님이 등을 달면서 등 달라고 하냐고 하니, 실제로 등을 다는 일을 자기들도 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순간적으로 받은 것이다. 하나의 말에 담긴 여러 가지 의미 때문에 생긴 가벼운 해프닝이다.

불자라면 익히 알고 있는 빈자일등(貧者一燈)의 이야기를 생각한다면, 본인이 정성을 담아 등을 달아야 한다. 부처님이 마을에 오시는데 부처님의 제자임을 자처하는 수행자들이 미리 등을 달아놓고 돈을 받고 판다고 생각해보라. 이보다 더 불경스러운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다. “등을 단다”는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은폐한다고 해서 본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물론 ‘부처님 오신 날’ 하루만 등을 쳐서 이 세상에 오신 부처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항상 부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등에 담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 가족의 이름

이 적힌 등이 일 년 내내 법당에 걸쳐 있는 걸 싫어할 불자는 없다. 요즘 같은 세상에 연등 하나 켜다고 해서 소원이 이루어지리라고 철쭉 같이 믿는 사람도 드물 것이다. 다만 언제 어떻게 닦칠지 모를 앞날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그렇게라도 다독여서 잠깐 잊고 싶을 따름이다. 그것도 약간의 돈만 지불하는 수고만 들이면 되는 일이니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한편, 초파일 연등 수입이 없다면 사찰의 운영에 크나큰 타격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오늘날 한국 불교의 열연한 현실이다. 초파일 풍경은 자본주의가 사찰 경제에 깊숙히 파고든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영문까지 사고파는 요즘 같은 자본주의 세상에서 사찰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을 다는 풍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전통이다. 부처님이 가신 지 벌써 2500여 년이 흘렀으니 형식이라고 남아 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상은 변한다. 아름다운 전통 역시 변한다. 처음엔 그 마음과 형식이 모두 전했지만 어느 순간 처음의 마음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는다. 더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나면 형식조차 사라져 결국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진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면 신도들은 정성을 담아 연등을 달고 또 스님들은 금액에

상관없이 신도님들의 시주물을 고맷게 받으련 된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은 이런 상식과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상식이 상식으로 통용되기만 해도 그 사회는 건강하다고 하질 않던가.

무언가가 풍습으로 뿌리내리고 전통으로 이어지는 것은 처음의 마음을 잊지 않으려는 숭한 이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대에서 아름다운 전통이 사라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도 없다. 초파일 연등을 켤 때 만이라도 2500여 년 전 난타라는 가난한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부처님께 등불을 올렸는지 되새겨 보아야 한다. 그래야 이 아름다운 풍습과 처음의 그 마음이 우리들의 후손과 그 후손들에게도 전해질 것이다.

난타는 부처님께 등불을 공양하며 이렇게 서원했다.

“이 작은 등불은 저의 큰 재산을 바치는 것이오니, 곧 저의 마음까지 모두 바치는 것이옵니다. 바라옵건대 이 인연 공덕으로 저도 내생에 지혜광명을 얻어 일체 중생의 여두운 마음을 없애게 하여주이다.”(현우경, 빈녀난타품)

올해도 어김없이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고 있다. 당신의 심중에 빈자일등은 한히 켜져 있는가?

### 기고

## 자외선의 계절

있다. 결국 사계절 자외선의 공격으로부터 피부를 방어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외선은 자외선 A, B, C로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자외선 A는 자외선 B만큼 심각한 화상을 입히지는 않지만 파장이 길기 때문에 피부 진피까지 깊게 침투해 진피층을 자극하고 손상시킨다. 자외선 B는 피부를 태우며 화상을 일으키고 피부암의 원인이 된다. 자외선 C는 파장이 짧아 대부분 오존층에서 흡수돼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자외선도 적절히 쬐면 항균 효과로 세균과 바이러스로 인한 피부 질환을 예방해주기도 한다. 또 비타민 D를 생성해 골다공증도 예방해준다. 하지만 건강에 이로운 자외선 노출 시간은 짧다. 태양광선이 한풀 쬐인 시간대인 오전 11시 이전, 혹은 오후 3시 이후의 10분 정도만으로도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D를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 이것이 자외선의 양면이다.

자외선 공격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제로 방어막을 구축하는 것이 상책이다. 무조건 자외선 차

단 지수가 높은 제품보다는 자신의 생활에 맞는 제품을 고르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다. 자외선 차단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SPF(Sun Protection Factor)’는 자외선 B를 차단하는 정도를 말한다.

따라서 자외선 차단제를 구입할 때는 SPF 뿐만 아니라 자외선 A를 막는 표시인 PA(Protection Factor of UV-A)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PA는 차단력의 정도에 따라 PA+, PA++, PA+++로 분류된다. 즉 + 개수가 많을수록 피부색 소 침착을 막는 능력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뒷동산에 2시간 정도 산책하는 것과 같은 보통 일상생활에는 SPF 15~30이면서 PA+, PA++인 제품으로 충분하다. 등산이나 골프 등 장시간 야외 활동에는 SPF 50과 PA+++으로 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하기 15분 전에 얼굴의 경우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짜서 바르고, 2~4시간 간격으로 다시 발라야 그 효과가 유지된다. 얼굴에 화장을 한다 면 기초 화장품을 먼저 사용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가장 마지막으로 바르면 된다.

주의할 점은 자외선 차단 효과가 클수록 피부 민감도가 높아 사람에 따라 피부 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때 자외선을 피하기 위하여 양산, 모자, 선글라스를 함께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의류의 경우 천의 종류와 질감에 따라 자외선 차단 효과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폴리에스테르의 자외선 차단효과가 가장 우수하고, 면은 효과가 떨어진다. 모자는 챙의 길이가 7.5cm 이상 달린 모자가 좋다.

분별을 우습게 보면 크게 데일 수 있다. 햇빛은 말 그대로 일광화상(日光火傷)을 입힐 정도로 강하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에선 봄부터 햇빛이 강해져 4월이면 일광 화상이나 기미, 주근깨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겨울에 비해 1.6배 이상 늘어난다. 모든 질환이 그렇듯이 치료보다는 예방이 최선이다. 자외선 A와 자외선 B를 동시에 막을 수 있는 차단제를 꼭 발라야 한다. 자외선은 11시부터 13시까지 가장 강하다. 피부 보호를 위해 효과적인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모자, 선글라스를 착용해 건강한 레저 활동을 즐기자.

###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시고,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 社說

## 남북 정상회담, 지역 민간 교류로 이어지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드디어 오는 판문점 평화 회담에서 만난다. 역사적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남북 민간 교류가 성사되길 바라는 지역민의 바람도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물론 교육계, 종교계, 문화 예술계, 경제계, 지자체 할 것 없이 사회 각 분야에서 구체적인 교류 프로그램까지 나온다.

우리 정부는 2010년 천안함 침몰 직후 이명박 정부가 인도적 목적을 제외한 북한과의 모든 교류를 금지하는 5·24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으며,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개성공단까지 폐쇄해 남북 관계는 단절되다시피 했다.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지만 주요 의제에는 남북 관계 발전 방향도 들어 있다. 오늘 회담의 성과가 남북 관계의 발전을 위해 민간 교류 재개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광주 시민단체들이 조직한 ‘기차 타고 목표~신민주 가자 추진위원회’는

남북 교류가 성사되면 국도 1호선 최남단 목포에서 광주~천안~서울~판문점~개성~평양 등을 거쳐 신의주까지 평화통일 여행을 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25일 내놨으며, 이미 참가자가 200명에 달할 정도로 호응이 뜨겁다.

광주시교육청 등 교육 단체들도 남북 청소년 간 교류나 평화·통일 수학 여행 추진 계획을 내놨으며, 해남 대흥사는 서산대사가 입적한 북한 보현사의 ‘추계 제향’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또 광주시는 2018광주비엔날레·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북한 선수를 초청할 계획이며, 전남도는 지역 생산 쌀·미역을 함경북도에 보내는 대북 협력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는 동·서독 통일이 정치적 결단 이전에 양측 간 문화 동질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선행됐음을 알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이 정치적 성과와 함께 민간 교류 활성화를 이뤄 남북 관계의 대전환점이 되기를 염원한다.

## 무관심 시·도 교육감 선거, 이대로는 안 된다

지역 교육계의 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가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깜깜이 선거’로 치러질 우려가 높다. 교육감 선거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지난 2010년 직선제로 전환한 후 2016년부터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관심을 끌지 못해 왔다. 올해도 6월 13일 지방선거와 같은 날 치러지만 광주시와 전남도교육감 선거에 누가 나왔는지조차 모르는 유권자들이 많다.

현재 광주시교육감 후보로는 정휘국 현 교육감과 이정선 전 광주교대 총장, 정희근 전 광주시의원, 최영태 전남대 교수 등 네 명이 출사표를 던졌고 전남 교육감 선거는 고석규 전 목포대 총장, 장석웅 전 전교조 위원장, 오인성 전 나주교육장 등이 경쟁하고 있다. 전교조 간부, 대학 총장, 교육 행정가 등 출신도 다양하고, 공약 또한 입시 경쟁 혁파, 광주교육회 설립, 전남형 교육모델 개발 등 스펙트럼이 다양하지만 누가 어떤 정책으로 선거에 나왔는지 아는

유권자들은 많지 않다. 교육감 선거가 이처럼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은 정당 소속으로 치르는 지방선거에 가려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오늘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 등 대형 이슈가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을 교육감으로 뽑는냐에 따라 교육 정책의 큰 틀이 결정되는 만큼, 시·도지사나 자치단체장 못지않은 관심이 필요하다. 막대한 예산(광주 2조 원, 전남 3조5000억 원) 운용에 다 문재인 정부가 교육부 권한을 대거 교육청으로 이양할 방침인 만큼 교육수장 선택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당장 오늘부터 실시되는 광주 혁신 교육감 시민 경선부터 관심을 갖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 후보들도 유권자들에게 더 다가가 자신들의 정책을 알려야 한다. 유권자와의 접촉면을 넓히기 위해 TV 토론 회수를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 無等鼓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과 마오쩌둥 중국 국가주석이 악수하는 장면을 담은 한 장의 사진이 있다. 세계 외교사에 길이 남을 인상적인 장면이다. 양국 정상은 ‘상해 공동 선언’을 통해 영토와 주권의 공화적 관행을 깨고 평양 순안공항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

사진은 한반도 해방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기록물로 남았다. 당시 어떤 언론사는 신문 1면에서 다른 모든 기사를 뺀 채 이 사진만을 신간도 했다. 그만큼 강렬했고 상징성도 컸기 때문이다. 남한에서는 북한 신드롬을 낳았다. 초등학생들이 손을 머리 위로 비스듬히 들어 올리는 북한 청소년들의 인사법을 흉내 냈고, 김대중 대통령이 먹었다는 평양 윤반을 만드는 음식점이 생겨날 정도였다.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가 남북정상 회담을 위해 평양으로 향하던 모습도 아직 기억에 선명하다.

### 한 장의 사진

표팀이 미국 대표팀을 초청한 것이 계기가 되어 열렸으며, 결국 ‘죽의 장막’을 열어줬었다. 이후 미국에서는 중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크게 일었다.

한국에서도 지난 2000년 전 세계가 주목하는 역사적인 장면이 한 장의 사진에 담겼다.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평양 순안공항에서 손을 맞잡은 순간이다. “은둔형” 지도자로 불렸던 김 위원장은 외교장관이 나서서 정상회담의 공화 의전 관행을 깨고 평양 순안공항에서 김 대통령을 직접 영접했다.

두 정상이 만나는 순간을 포착한 이

당시 대통령 내외가 군사분계선을 도보로 넘는 모습을 담은 사진 역시 국민에게 깊이 각인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회담 장소가 판문점 남측 지역이어서, 분단 이래 최초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 땅을 밟게 된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인상적인 장면이 사진에 담길지 자못 궁금하다.

/윤영기 사회부장 penfoot@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7-9500)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